

尹탄핵심판 서류 송달 안돼...헌재 후속절차 지연 불가피

인편·우편·전자문서 3중 시도 헌재 “대통령실 접수확인 안해”
변론은 생중계 안하기로...‘6인 체제’ 선고가능성은 ‘논의 중’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16일 이후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대

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 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3:4:5면
헌재는 지난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

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헌재는 16일 인편과 1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개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다. 당일 수신이 이뤄지면 오는 23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송달 지연으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지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으나 공식 접수증을 받지 못했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비서실과 대통령 관저에는 1일 특송으로 우편을 보냈으나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고,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도 발송했으나 송달 확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 공보관은 관련 서류가 최종적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대안에 대해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서류 송달이 되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지연도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 측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준비 절차에 불참할 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의견을 밝히지 않는 등 공전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아직 헌재에 대리인 선임 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관저로 보낸 출석 요구서도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공보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 헌재 공석인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예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헌재 재판관 6명이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재판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결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가능

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오는 19일 정기 재판관 평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공보관은 “필요하면 (19일 평의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헌재가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인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 공보관은 “결과와 내규에 따라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고 예외적으로 공개하기 위해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공보관은 “주심이라고 해서 일정이나 내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주무하는 일은 심리 (내용에 대한) 내부 정리”라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연합뉴스



“윤석열 체포·구속하라” 조선 후기 동학혁명을 이끈 전봉준 장군의 이름을 딴 ‘전봉준 투쟁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며 전국에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들고 상경 투쟁에 나섰다. 17일 오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농민들이 광주 광산구 한 도로를 지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구속·파면, 가담자 처벌, 국민 의힘 해체, 농산물 최저가격제 시행 등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시·도에서 출발한 투쟁단은 오는 21일 서울에 입성한다. <특자 제공>

“윤 대통령, 탄핵 변론 때 직접 입장 피력”

석동현 변호사 “내란수사광기”...수사·탄핵심사 별개 대응
출석 요구엔 “대통령 등의 거처 입장...중복수사 조정 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법치와 헌법과 법률의 근저에 깔린 적법절차 원칙을 따르겠다는 인식이 확고하지만, 현재 이뤄지는 내란죄 수사는 ‘광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치가 조롱당하고 훼손됐던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법적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심판”이라며 “법정에서 집권 후 지금까지 야당에 의한 국정 난맥과 국현 문란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년 전 탄핵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 안 나왔지만, 이번에는 그런 단계가 되면 당연히 변호인

보다 (윤 대통령)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진술할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조정을 어려워했던 내란은 무슨 내란”이라며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정권 전환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폭동 요소도 없었다는 취지다. 그는 “이게 무슨 내란이라고 육군 참모총장을 대포 구속해버리고... 지금 광기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관적 느낌을 받는다”며 “탄핵 소추로 헌법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의 신분인데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 (하겠느냐)”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 입장에서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어떻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총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오는 21일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대로 18일 출석하느냐는 질문엔 “내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과 수사 절차를 동시에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세 기관이 동시에 수사에 뛰어들어 강제수사, 출석 요구까지 혼선이 빚어지는 것 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변호인단 구성은 미완이라며 내란 수사에 대비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오는 21일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대로 18일 출석하느냐는 질문엔 “내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과 수사 절차를 동시에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세 기관이 동시에 수사에 뛰어들어 강제수사, 출석 요구까지 혼선이 빚어지는 것 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변호인단 구성은 미완이라며 내란 수사에 대비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기부로 나눔 가치있게
광주전남을 가치있게!

성금접수 계좌
광주 사랑의 열매 : 053-107-999990 (광주은행)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 사랑의 열매 : 301-4000-3000-01 (농협은행)
전라남도공동모금회

주말까지 ‘강추위’
오늘 최대 5cm 눈 소식도

이번 주말·휴일까지 광주·전남은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푹 떨어져 매우 춥겠다.

1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늦은 오후부터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내리기 시작한 눈과 비는 점차 광주·전남 전역으로 확대돼 18일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적설·강수량은 각각 1-5cm, 5mm 안팎이다.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18-19일 최저기온은 평년(영하 4도-영상 1도) 이하겠다.

18일 최저기온은 곡성·보성·영하 4도로 가장 춥겠다. 나머지 지역 최저기온은 영하 3도-영상 1도, 최고기온은 2-6도로 예보됐다.

19일 최저기온은 곡성 영하 7도, 담양·화순 영하 6도, 나주·장성·영광·함평·영암·구례·보성 영하 5도, 무안·순천·장흥·고흥 영하 4도, 광주·광양·강진·해남 영하 3도 등 전남보다 소폭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고기온은 약간 오른 5-9도 분포를 보이겠다.

20-21일 최저기온은 영하 4도-영상 2도, 영하 2도-영상 4도로 예상된다. 양일 최고기온 예보는 각각 7-10도, 5-8도다. /안재영 기자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의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니 읍·면·동에 사전 문의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기준

사용안내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하절기 바우처	요금차감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전기만 가능
동절기 바우처	요금차감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1) 요금차감은 '25년 5월 25일까지 청구(작성)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지연
2)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25년 5월 25일까지 카드결제완료 필요

바우처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 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1) 위 금액은 2024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2)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담겨 쓸 수 있음 (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3)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4)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구매 시 배달료 포함하여 결제 가능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한국에너지공단